

광주 FC 광양서 본격 훈련 돌입

신·구 조화 ‘광주색’ 입혀 상위 스플릿 간다

〈6강〉

18일까지 신인 체력 키우기 주력…21일부터 태국 캠프

광주 FC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광양에 1차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휴식기를 끝내고 2일 광주에 소집됐던 선수단은 3일 광양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오전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에서 몸을 풀 선수단은 오후에는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새로운 시즌을 위한 기지개를 켜었다.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출발. 막내팀의 돌풍을 일으키며 당당히 K리그 무대에 올랐던 광주는 지난 5시즌을 보내면서 K리그 첫 강등팀, 승격팀, 승격팀 첫 잔류팀이라는 아픔과 환희의 수직어를 달았다.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매년 K리그에 새로운 역사가 됐던 광주는 이번에는 상위 스플릿이라는 고지를 목표로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된다.

쉬운 고지는 아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빠졌다. 임선영(MF)·제종현(GK)·안영규(DF)·정준연(DF)이 군복무를 위해 팀을 떠났고, 광주를 대표하던 ‘해결사’ 김호남(MF)도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면서 광주는 기적 같은 승격과 클래식 리그 잔류를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의 공백 속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고향팀에서 5번째 시즌을 맞게 된 미드필더 여름이 임시 주장으로 광양 캠프를 이끌고 있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들게 된 신인들이 캠프의 중심이다.

이들은 오전·오후 체력 기술 훈련에 이어 야간 웨이트까지 병행하면서 광주를 대

표할 얼굴로 키워질 예정이다.

2016시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광주는 오는 18일까지 광양에서 체력과 광주색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남기일 감독은 신인 선수들이 많은 만큼 프로 무대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키우고, 광주의 색을 입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5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움직임도 점검한다.

광주는 태국을 무대로 2차 캠프를 치르게 된다.

오는 21일 태국(무앙통)으로 이동하게 되는 광주 선수단은 내달 6일까지 2차 전지훈련을 통해 스피드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더욱 매섭게 하기 위

해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지팀과의 연습경기도 치를 예정이다.

2016시즌을 위한 마지막 점검 무대는 일본이나 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 영입 작업은 아직 진행중이다. 시즌이 끝난 뒤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 작업에 들어간 남기일 감독은 ‘베테랑을 통한 광주의 클래식 리그 안착’을 목표로 2016시즌을 구상하고 있다. 그만큼 경험 있는 선수들을 통해 이탈 멤버들의 공백을 채우고 안정적인 광주의 질주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각오다.

광주 시민들을 웃고 울린 광주 FC, 이들의 가슴 설레는 2016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광양=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에 1차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광주 FC 선수들이 3일 오전 순천 팔마종합경기장을 돌며 몸을 풀고 있다.

〈광주 FC 제공〉

김효일, ‘친정’ 전남에 코치로 돌아왔다

전남의 ‘캡틴’ 김효일이 코치로 친정으로 돌아왔다.

전남 드래곤즈가 4일 “주장을 맡아 전남의 2006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김효일을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2003년 전남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김효일 코치는 2006년까지 4시즌을 주전 미드필더로 뛰면서 87경기에 출전해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주장으로 팀의 FA컵 우승을 이끌기도 한 그는 선수시절부터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으며, 부드러움과 감성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라는



평가다. 전남의 새 식구가 된 김효일 코치는 “친정팀에 코칭스태프로 새롭게 합류한 만큼 노상래 감독을 잘 보필하여 팀이 올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은 김효일 코치의 합류를 끝으로 코칭스태프 선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적응 중’

6경기 연속 교체 출전…팀내 입지 빨간불
빠른 경기 템포·볼 없을 때 움직임 관건

‘손사인’ 손흥민(24·토트넘)이 최근 정규리그에서 6경기 연속 교체 출전하면서 팀내 입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흥민은 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원정에서 교체멤버로 대기하다가 1-1로 팽팽한 후반 24분 그라운드에서 투입됐지만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왓퍼드를 상대로 후반 23분 교체투입돼 후반 종료 직전 재지있는 발꿈치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내 팀 승리를 이끌었던 손흥민은 내심 2경기 연속골을 노렸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손흥민은 에버턴전을 포함해 최근 정규리그 6경기 연속 후반 교체 멤버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지난해 여름 6주 동안 그라운드를 떠나 있던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그라운드에 복귀한 이후부터 정규리그에서 9경기 연속 출전 기회를 얻고는 있지만 시즌 초반 선발 요원을 활약한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정규리그 20라운드까지 손흥민이 따낸 공격포인트는 2골 1도움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까지 합치면 4골 5도움이다.

나쁘지 않은 성적표지만 손흥민이 최근 선발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문성 SBS 해설위원은 이번 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20살 공격수’ 델리 알리의 맹활약과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경기 템포에 아직 확실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해설위원은 “손흥민이 못했대기보다는 2선 공격진을 이루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 라멜라, 알리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며 “사령탑으로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4-2-3-1 전술을 주로 가동하는 토트넘의 원톱 스트라이커는 해리 케인이 담당하고 있다.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나 케인의

뒤를 받치는 새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경쟁자들의 이번 시즌 활약이 너무 뛰어나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에릭센은 2골 6도움, 라멜라는 3골 3도움, 알리는 5골 3도움을 작성하고 있다. 케인은 11골(1도움)로 독보적이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 측면 날개와 최전방 공격 역할까지 맡았지만 케인의 득점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측면 공격 역할을 주로 맡았다.

하지만 손흥민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라운드를 비운 사이 알리에게 출전 기회가 돌아갔고, 알리는 유망주에서 주전으로 급부상했다.

잉글랜드 U-17 대표팀과 U-21 대표팀까지 경험한 알리는 지난해 10월 잉글랜드 대표팀 데뷔전까지 치르면서 잉글랜드 축구의 ‘젊은파’로 인정받고 있다. 2선 공격은 물론 중앙 미드필더까지 맡을 수 있고 최근 7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선발라인업’으로 눈도장을 받았고, 결국 손흥민은 ‘후반 조커’로 역할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경기 스타일에 아직 확실하게 적응하지 못한 것도 손흥민의 주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해설위원은 “손흥민은 볼을 잡은 상태에서 드리블은 물론 결정력도 좋지만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움직임이 약하다”며 “토트넘은 빠른 패스를 앞세워 공격을 진행하는 데 손흥민의 위치가 패스를 받기에 부적절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패스를 받을 위치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해설위원은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 달리 스피드도 훨씬 빠르고 체력 소모도 많다”며 “손흥민은 단순히 팀을 바꾼 게 아니라 리그 자체도 변화가 온 만큼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히딩크 ‘적응 끝’

첼시 감독 3경기만에 승리…1승2무 순항

거스 히딩크(70·네덜란드) 감독이 첼시 지휘봉을 잡고 세 번째 경기만의 첫 승리를 따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첼시의 사령탑에 선임된 히딩크 감독은 벤치를 지킨 세 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조제 모리뉴 감독의 후임으로 사령탑에 선임된 당일 선덜랜드와 경기는 관중석에서 지켜본 히딩크 감독은 이후 왓퍼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달아 비긴 뒤 이날 첫 승을 거뒀다.

히딩크 감독이 팀을 맡았을 당시 강등권인 18위와 승점이 불과 1점 차이였던 첼시는 이날 승리로 6승5무9패를 기록, 순위를 14위로 끌어올리며 강등권과 격차도 승점 6으로 벌렸다.

첼시는 전반 29분 오스카르의 선제 득점으로 기선을 잡았고 후반 15분 윌리안, 후반 21분 디에고 코스타의 연속 골로 세 골차 완승을 마무리했다.

오스카르와 코스타는 나란히 1골, 1도움으로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청용(28)은 이번 시즌 처음 선발로 나와 후반 35분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전반 30분 이청용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트를 시도, 공이 반대편 골대 대각선 위로 살짝 빗나가는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등 활발한 몸놀림을 선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털 팰리스는 최근 세 경기 연속 무득점의 골 가뭄 속에 2무1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9일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이청용이 터뜨린 결승골이 크리스털 팰리스의 마지막 득점 기록이다. 9승4무7패가 된 크리스털 팰리스는 7위에 머물렀다. 이날 이겼더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5위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상위권 도약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연합뉴스

